

밤 12시면 문 닫는 ‘24시간 운영’ 업소들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까지...폐업 증가

새벽 12시~오전 6시 문닫는 곳 늘어...점주 직접 근무도

“어휴... 좀 버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인건비 맞추는 것도 힘든데요.”
광주시 광산구의 한 국밥전문점 사장 A (45)씨는 이제 개업 1년조차 안 됐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밤장사’를 포기하게 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간이면 마지막 술자리로 속을 풀고 가려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24시간 국밥집을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버틸 요량이 없다는 것이다.
박씨는 “연말이라 회식과 송년회 자리가 많아 특수를 기대했는데 최근 술자리 문화가 바뀌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줄었다”며 “밤에 가게를 열면 인건비를 건지 기조차 힘들어 아예 밤장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B(여·56)씨도 ‘24시간 편의점’이라는 업계의 관행을 깨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야간에 일하는 시간대 근로자에게 주간임금보다 1.5~2배를 더 줘야한다. 지금도 야간 알바를 고용으로 점주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는 “편의점 본사에 탄력운영을 신청해도 본사가 정해진 시간에 쉬어야 한다”며 “점포를 닫을 수 있는 시간도 짧은 탓에 점점 편의점 운영이 힘들어 진다”고 토로했다.
하루종일 도심 속에서 환하게 불빛을 밝

히던 ‘24시간 운영’ 업소들이 빠르게 ‘밤장사’를 포기하고 나섰다.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내년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인건비를 건지는 것조차 어려워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에 결정된 상태다. 예를 들어 당장 내년부터 야간·주휴수당 1.5~2배를 적용해 알바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시간당 1만1025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음식점과 PC방, 주유소 등도 마찬가지다. 야간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알바생 1명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인건비만 5만5125원이다.
이들이 야간 알바를 고용해 일주일 동안 평일 5일에 하루 6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한달치 인건비는 132만3000원에 달한다.

반면, 새벽 시간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줄어들면서 매출도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গত 새벽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해도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한 편의점 업주는 “정작 편의점 점주는 하루 10시간이 넘게 일하면서 한달 수익 250만원 남짓을 챙기고 있다”며 “업계간 경쟁도 치열해 매달 순이익도 줄어든다고 있어 ‘차라리 알바가 낫다’는 말도 나올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2018~2021년 3단계 근로시간단축’까지 추진하면서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인력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확 바뀐 ‘더 뉴 레이’ 출시

기아차 안전성·연비 개선

2011년 첫 출시 당시 독특한 ‘박스형’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기아자동차 경차 ‘레이’가 7년여 만에 안전성, 연비 등이 개선된 새 모델로 돌아왔다.
기아차는 13일 서울 압구정동 브랜드 체험공간 ‘비트(BEAT) 360’에서 ‘더 뉴 레이’ 사진·영상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신형 레이의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별집 모양 패턴이 적용됐고, 프록션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등(DRL) 등도 탑재됐다.
실내에도 입체감을 살린 3스포크 스티어링 휠(운전대), 센터페시아(중앙조작부) 메탈 베젤(금속재질 테두리), 귀여운 기어노브(기어봉) 등을 갖췄다.
개선된 카파 1.0 MPI 엔진의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2.4% 늘어난 13km/ℓ (14인치 타이어 자동변속기 기준) 수준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이 모든 세부모델에 기본 적용되고, 기존의 6에어백 시스템에 롤오버 센서(전복감지)가 추가됐다.
뒷좌석 시트는 6대 4 비율로 완전히 접히고,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319ℓ의 적재용량이 확보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뒷좌석 시트를 없애 트렁크 공간을 확장한 ‘밴(VAN)’ 모델의 적재용량은 최대 1447ℓ에 이른다.
특히 ‘더 뉴 레이’는 운전자의 개성을 반영한 ‘맞춤(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이 구매자는 3가지 차량 본체 색(밀키 베이지·순백색·오로라블랙)과 루프(지붕),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라디에이터 그릴, 테일게이트 가니쉬 등의 색깔을 선택해 조합할 수 있다.
‘튜닝 내장 드레스업 패키지’를 선택하면 무드 라이팅, LED 룸램프, LED 선바



이저 램프, 카매트, 도어 스커프 등 내장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더 뉴 레이 가솔린 세부모델별 가격은 ▲디럭스 1315만원 ▲트렌드 1380만원 ▲

럭셔리 1455만원 ▲프레스티지 1570만원이다. 밴(VAN) 모델은 기본형이 1210만원, 고급형은 1265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고용률, 광주는 오르고 전남은 하락

11월 광주 취업자 전년비 1만9천명 증가...전남 1만2천명 줄어

지난 11월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남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9000명(2.5%)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4.2%)은 증가하고 농업·임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9만명으로 2만8000명(7.7%), 일용

근로자는 4만1000명으로 5000명(14.4%), 임시근로자는 14만5000명으로 1000명(0.6%)이 각각 증가했다.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1000명(-4.5%) 감소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 동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4만2000명으로 1만2000명(-1.2%)이 감소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증가했으나 농업·

업, 광공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3만명으로 4000명(1.2%), 일용근로자는 5만7000명으로 5000명(10.2%)이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17만1000명으로 9000명(-4.9%) 감소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명으로 9000명(-30.3%)이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0.55 (+19.55) 금리 (국고채 3년) 2.08% (0.00)
↑ 코스닥 772.22 (+11.82) ↓ 환율 (USD) 1090.70원 (-1.70)

정찬암·김경태·안영수 신임 부행장보 선임

광주은행 임원 인사·조직 개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13일 임원 인사와 본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송종욱 은행장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이번 인사에서 정찬암(전 영업부장), 김경태(전 WM사업부장), 안영수(전 신탁사업부장)를 신임 부행장보로 선임하였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정순자 부행장보와 김태전 부행장보는 연임됐다.
이번 임원 인사의 특징은 영업능력과 조직을 축소해 후속 정기인사시 본부 실적을 최대한 고려해 발탁한 것으로 이들 영업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고객 중

심 경영과 영업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부 조직 개편은 디지털본부(디지털전략부, 디지털사업부)를 신설해 디지털화 조직을 통한 신규 사업분야 확대 및 현장 영업조직 강화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높였다. 또한 핀테크 시대에 맞게 기존 영업에 디지털영업을 접목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부 부서를 영업점 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조직을 축소해 후속 정기인사시 본부 인력의 10% 수준을 영업 인력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가계대출 한달만에 10조1천억 증가

11월 1년세 최대폭 상승...가계부채 종합대책 효과 미미

연말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이 2008년 한은의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전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0조10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1년만에 최대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2017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전월(9조9000억원)보다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11월(15조2000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증가폭은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올들어 11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84조5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분 114조원의 74.1%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증가세에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공사협 전남도회 ‘교육사랑 장학금’



교육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전연수)는 13일 전남도교육청 본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제)과 전남교육사랑장학회 장학금 지원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지역

학생과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점차 지역 발전은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중추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연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